

사무실	요원담당 : 918-9540 912-4612
주임신부	주호식 비드리스코 918-9541
보좌신부	배가원 프란치스코 918-9542
수녀원	윤 요이집 918-9544 우 로시미스티카 이 피아제
F A X	918-9539
연락처	박성애 홀리안나 010-4752-3367
예비신자 교리시간	일요일 : 오전 9시 목요일 : 오전 11시 오후 8시
성시경	매월 첫 금요일 오후 7시
고해성사	매 미사 20분 전



성모칠교 길음동성당

136 - 802

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7

<http://www.gilum.org><http://club.catholic.or.kr/maria7>

주 일	06 : 00	평 수 일 목 금	월	06 : 00
	09 : 00 (중고등부)		화	10 : 00 19 : 00
	11 : 00 (교 중)		수	06 : 00 10 : 00
	18 : 00 (창 년)		목	10 : 00 19 : 00
토 요 일	06 : 00		금	06 : 00 10 : 00
	15 : 30 (어린이)			
	18 : 00 (특 전)			

성모신심미사	매월 1주 토요일 오전 10시
유아세례	매월 1주 토요일 오후 5시
혼배면담	매월 1, 3주 토요일 오후 5시
봉 상 제	매월 1주 수요일 오후 3시

- ◎ 4월 2일(수) 오후 3시 봉성체
4일(금) 오후 7시 성시간
5일(토) 오전 10시 성모신심미사
5일(토) 오후 5시 유아세례

※ 4월 혼배 면담은 4월 5일(토)과 19일(토)입니다.
서류는 해당일 2주 전까지 사무실로 접수바랍니다.

◎ 사순 시기 “십자가의 길” 안내

사순 기간인 4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
에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.

◎ 사순 특강 세 번째 강의

주 제 : “바로로 사도의 서간에서 배우는 기도”
강 사 : 박기석 (사도요한) 신부님
사목국 성서사목부 전담
일 시 : 4월 5일(토) 특전 미사 후
장 소 : 대성당

◎ 사순절 성경 쓰기

단식과 절제와 참회와 나눔을 통해 부활을 준비하는
사순절에 가족과 함께 마태오 복음서를 씁시다.
굿뉴스 개인성경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마태오 복음
과 1개 이상의 성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.

◎ 집중 판공 성사 일정

4월 12일(토) 오후 7시 ~ 오후 9시

◎ 연례회 성지순례 안내 : 갑곶성지

일 시 : 4월 30일(수) 오전 8시 성당 출발
접 수 : 4월 13일(주일)까지 선착순 80명
연락처 : 박 율리안나 010-4752-3367

◎ 글라라의 집 홍보 안내

일 시 : 4월 5일(토) ~ 6일(주일)
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에서 무의탁 무연고
노인복지시설 후원기금마련을 위한 물품 판매
※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◎ 본당 클럽 개설 안내

가톨릭굿뉴스에 본당클럽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.
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<http://club.catholic.or.kr/maria7>

◎ 사목협의회 상임위

4월 6일 교중 미사 후 사목협의회실

◎ 단체 월례 회합 일정

전례독서단 4월 5일 성모신심미사 후 바로로실
남성총구역 6일 09시 30분 사목협의회실

◎ 족구 선교단원 모집

족구를 통하여 친교와 봉사를 같이할 교우분을 모집
니다. 단 장 : 이 F.살레시오 010-3230-8442

◎ 본당 소식

“죽” 새 생명 탄생

8구역의 이인희 (엘리자오), 이금순 (레아) 부부가
첫째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.
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출산을
축하합니다.

◎ 주일봉사 및 성당청소

사순 제 4 주일 3월 30일 17 구역
사순 제 5 주일 4월 6일 18 구역

◎ 감사 헌금

이현택 첼레스티노/박종미 세실리아 혼배쌀 120kg
이현택 첼레스티노 300,000
오완섭 세라피노 200,000 박청하 아네스 50,000
박현나 베로니카 50,000 박은정 그레이스 30,000

◎ 우리의 정성

사 순 제 2 주간	교 무 금	7,777,000원	사 순 제 3 주일	주일 헌금	5,269,470원
	성소후원금	358,000원		2차 헌금	3,325,110원
				미사 인원	2,350명

◎ 미사 참례 시 유의사항

- 성가는 기도입니다. 그 의미를 새기며 정성과 마음을
다하여 불러야 합니다.